

유명해지지 못하면 사라지는 것일까...'유명한 무명'展

29 June, 2016 | 권혜진 기자

page 1 of 2

내달 말까지 국제갤러리서 젊은 작가 7인 그룹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김영나, 김희천, 남화연, 베리띵즈, 오민, 이윤이, EH 등 최근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젊은 작가 7인의 그룹전이 29일 국제갤러리에서 막을 올렸다.

전시는 현대사회가 암묵적으로 규정한 유명인과 무명인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를 통해 유명해지지 못하면 사라지고 마는 일종의 강박에 가까운 현실을 조망하고 유명에 집착하며 이를 향해 질주하는 세태를 반추한다.

한발 더 나아가 동시에 알려지기가 무섭게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공포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 세대의 딜레마도 들여다본다.

참여 작가들은 미디어, 설치, 디자인, 사진 작업 등 다양각색의 방식으로 유명과 무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속에 불확실성과 연약함, 변화 가능성과 동질화, 획일화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전시관에 들어서면 남화연 작가의 거대한 흑백 조각 '화이트 마돈나'와 '블랙 마돈나'가 관람객들을 맞는다. 마치 거대 기형 식물이 페인트를 뒤집어쓴 듯한 모양의 이 조각은 작가가 지난해 5월 일본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발견된 기형적인 모양의 테이지에서 착안한 것이다.

작가는 세포 분열 오류로 탄생한 이 돌연변이를 통해 '자연적' 또는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김영나 작가의 '세트'(SET)의 연작은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디자인과 미술을 넘나들며 전방위적으로 활동하는 작가의 특성을 한눈에 보여준다. 전시장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페인팅 작품은 작가가 과거에 참여했거나 기획한 전시

이미지를 모아 재조합, 재배열한 것이다.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건축사진가 EH는 라인, 면, 조명만으로 모든 입체구조물을 평면화했다. 서울 외곽에 있는 모텔 건물의 선을 장식하는 조명을 포착한 '모델라인' 시리즈 속 모델은 마치 도면화된 이미지처럼 보인다.

또 수돗물을 끓이고 남은 침전물을 확대 포착한 사진작업 '프린티드 매터 HW'(Printed Matter HW) 등도 선보인다.

독립 큐레이터인 김성원 서울과학기술대 조형예술학과 교수가 전시 기획을 맡았다. 김 교수는 평소 눈여겨본 전도유망한 작가들을 발탁해 전시를 기획했다.

김 교수는 "우리 시대는 유명과 무명으로 구분된다. 알려지기 위해 초고속 질주를 멈추지 않는다"면서 "오늘날 젊은 작가들에게 진정한 유명을 위해 무명과 사라짐의 전략을 제안해왔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7월 31일까지.

